



이 병 석

본회 '96 임직원 연수회 성료

'96 연수회

푸 르름의 계절 5월, 이달은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등의 행사가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마운분들을 찾게 되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협회에서는 전국지부 지부장님들과 직원, 회원들이 모여 친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근 세계 곡물값의 폭등에 의해서 양돈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본회 전국 임직원들이 한데모여 앞으로의 당면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임·직원 연수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본회, 제16차 임직원 연수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에 임·직원 연수회에서는 임원, 지부장 및 지부회원, 직원등 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번 연수회를 통해서 지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습득하고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김남철과장이 정부의 「양돈정책」에 관한 강의와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부 유재일 부부장의 「축산분뇨처리 및 시설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권오광 박사로부터 「양돈사료 자가생산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해서 궁금중과 회원들의 건의사항등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외에 종합토의, 신임지부장 소개, 양돈인 친선의 밤, 우수지부 운영사례발표 등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화합과 단합 무엇보다 중요

5월 9일 오전 11시부터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지부별로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등록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한 후에 1박 2일동안의 연수회가 입소식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노영한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입소식에는 합천지부(지부장: 안석환), 영주·봉화지부(지부장: 김동성), 서남지부(지부장: 박성화), 울산시 지부(지부장: 석정민), 옥천지부(지부장: 이명환) 등 신입지부장에 대한 인준서가 수여되었으며,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데서 오시느라 애쓰셨다며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한 후에 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매년 40개정도 지부의 지부장이 바뀌므로 새로운 지부장님들과 임원님들을 모셔 협회에서 추진하는 일과 역할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연수회를 통해서 서로가 잘 알고 토의등을 통해서 가까워지기위해 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료값이 12% 올랐는데 우리 양축가들은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서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조금 제도법에 의한 개정, 환경에 대한 개정, 자가배합에 대한 문제등에 대해서 토의하고, 우리들이 살길을 의논하고 협의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병문 충남도 협의회장이 대표로 연수기간중 효과적인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가 있었으며, 본회 지도부장의 사회로 윤대열 수원지부장등 신입지부장 소개의 순서가 있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김남철 과장은 “양돈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남철과장은 강의를 통해서 국내의 전반적인 양돈현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만·미국 등 외국과의 돼지생산비를 비교하고, 돼지생산비는 사료비 및 인건비절감과 생산성향상등으로 20% 정도의 인하는 가능하므로 전업화된 농가에서 노력만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밝히고 현재 양돈업의 당면한 과제, 즉 사육규모의 영세성, 사육시설의 낙후성 등 생산 여건과 도축시설이 영세한 등 유통여건과 수출원료용 규격돈 생산체계미흡등 교역여건이 외국에 비해 낙후함에 따라 정부의 양돈주요시책으로 돼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전업양돈농가육성, 양돈업의 계열화, 단지화를 통한 경영개선, 중돈보급, 돼지고기의 유통개선, 돼지고기의 위생 및 품질수준향상을 통한 수출확대, 돼지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등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설보조 측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는 시설부문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경영비 측면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부장들로부터 많은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 윤대열 수원지부장은 정부에서 MMA 물량외에 1만톤을 추가로 수입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경위와 후반기 돈가가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의 질문에 김남철 과장은 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수급조절 물량이 없다면 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며 반면 수입품의 유통기간이 자율화된 상태에서



연수기간중 효과적인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병문 충남도 협의회장의 대표선서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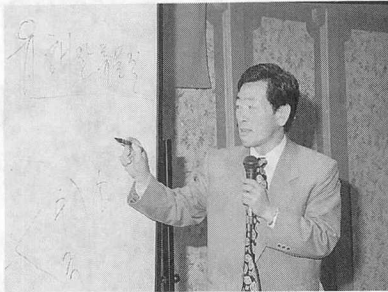
주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10
장소: 파라다이스



「양돈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는 김남철 과장



입소식 전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는 막을 열었다.



「축산분뇨처리 및 시설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는 유재일 부부장

국내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수입고기의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했다"라고 말하고 "돼지값이 폭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화되면 정부에서 가격을 수급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지만 정부에서도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하반기에 돼지고기값이 떨어지면 수입물량 방출중지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부 유재일부부장은 "축산분뇨처리 및 시설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 돈사시설의 전반적인 총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돈사시설 설치시 양축가들

이 소홀히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국대 권오광박사는 "양돈사료 자가생산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권교수는 양돈사료 자가생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강조하고 자가생산을 하기위한 재료비, 이용 가능한 부산물, 양돈 자가배합을 위한 구비 조건 등 양돈사료 자가배합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다. 특히 맥주박, 사과박등을 이용하는 경우 농장에서 습식급이를 할 수 있다면 현재라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잔반사료등을 이용하면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산물배합시 적절한 배합을 해야하며 부산물의 가공성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공동자가배합하는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잔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종합토의를 통한 의견교환

주제강의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진 순서에서는 본회 노영한전무의 사회로 종합토의가 있었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종합토의에서는 돈분처리에 관해서 이종열 김포지부장이 "현재 돈분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돈분을 토지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활성오니법 등을 이용한 처리는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뇨를 줄이고, 비료화가 유리하기 때문에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영렬 경남도협의회장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석회 등 수분조절제를 연구해서 양돈농가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액비화 살포기준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돈분을 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데 농림수산부등에 건의하여 돈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이종구 서산·태안지부장은 도매시장 지육가의 평균가격의 경락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며,

최희태 전남도협의회장은 물살이 세면 잔가지는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우리 협회회원이 하나로 뭉치면 큰 힘이 되고 나가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온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의 후에는 첫째날의 마지막 행사로 레크레이션을 갖고 연수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지부장·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재미있는 게임과 회원들의 노래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 되었다.

화합을 통한 효율적인 지부 운영해야

다음날 정호풍 지도부장의 사회로 이어진 우수지부 운영사례발표에서 '95년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홍성지부의 김건태 지부장은 "홍성지부는 지난 81년도에 18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는 180여명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30대에서 70대까지 회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매월 17일에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100~120명 정도가 참석하는 등 화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축산기자재, 사료, 약품등 공동 구입(120~140명 정도가 이용)을 통한 수입등으로 자립의 기틀을 다졌고, 이를 통해 95년도 한해에는 2,500만원의 흑자를 올렸다. 특히 월례회때는 세미나, 교육등을 통해 월례회에 참석하면 무엇인가 얻어간다는 마음가짐을 전회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홍성지부는 홍성양돈인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상호교류하며, 단합화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외에 '95년 우수지부로 선정되었던 안양·시흥지부와 고성지부의 우수한 지부 운영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우수지부 운영사례발표가 마쳐진 후에 정호풍 지도부장이 중앙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등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협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폐회식에서는 김동환 안양·시흥지부장이 대표로 연수회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본회 전동용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수회에 끝까지 참석해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한 후 "현재 정부가 MMA물량(최소시장물량)에다가 수급조절용으로 1만톤을 추가로 수입하는 등 실상의 행정부가 이렇게 때문에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등은 혼자서 안되므로 모두가 힘을 합친 조직의 힘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말하고 "나 자신보다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한 연수회를 통해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의논하면 결국은 우리모두가 발전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인물들을 소개하고, 협회의 업무 소개, 양돈정책등의 강의, 지부별 건의사항과 우수지부 운영사례발표등 알차게 진행된 2일간의 임·직원 연수회는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쳐졌으며 각 참가자들은 현실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단합된 모습으로 양돈산업을 리드해 나가고자 굳게 다짐하고 연수회장을 나섰다.



「양돈사료 자가생산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강의하는 권오광 박사



흥겨운 친목의 시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